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3년만에 열린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서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사람중심 통합의학, 장흥에서 세상으로' 주제 5일간 개최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3년 만에 열린다.

오는 30일 장흥군 안양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막을 올린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2022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안양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사람중심 통합의학, 장흥에서 세상으로'다.

장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간 개최되지 못한 만큼 방역단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박람회 개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해 코

로나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요법을 통합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미래 의학의 새로운 흐름이다.

장흥군은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통해 통합 의학을 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

전시관은 미래 에어리블 주제관, 통합의학관, 대체의학관, 통합의료병원관, 의료산업관, 특산물 판매관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특별 주제 전시와 관람객 편의를 강조한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개인의 건강을 돌아보고, 사람 중심의 미래 의학의 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가족과 함께 통합의 학박람회에서 건강한 나들이를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국토부 공모 선정 '일자리 연계형 주택 건립'

108억 투입...지역 전략 사업 종사자 주택 확보

완도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모 사업의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본 사업은 지역 전략 산업의 종사자를 위해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역 특화 산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바이오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총 108억 원을 투입해 신지면 대곡리에 지역 전략 산업 종사자 전용 공공 임대주택(68세대)을 건립한다.

사업은 군이 직접 건설 및 운영을 총괄하며, 2023년 착공하여 2025년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사업 선정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 산업인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거점 단지 조성과 해양수산부의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육성을 위한 연구자 유입과 지역 전략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 전략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해양바이오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적극행정 우수 사례, 3년 연속 표창 받아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2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활동 요금제도 개선'을 이끈다'로 기관 표창(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활동 요금제도 개선'을 이끈다'는 완도군 군외면 일부 지역의 경우 「섬발전촉진법」에 의거 도서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주민들이 부담하게 택배비 활동료를 부담하고 있어 주민 면담, 조사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반영됐다.

군은 제도 개선으로 섬 지역 택배비 활동료를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하반기 경진대회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해상 확대'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경진대회에서는 'LPG 배관망 사업 연계, 취약계층 보일러 무상 교체' 사례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제12회 마량미항 찰전어 축제 성료

관광객 2만여 명, 가을 별미 전어 맛보고 즐겨

지난 8일부터 3일간 열린 제12회 마량미항 찰전어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따른 행사 준비 차질과 찰전어 조업 난항에 따른 수급 부족 등 여러 난관에 불구하고, 누적 관광객 2만 명이상이 다녀가며 대성황을 이뤘다. 인터넷과 SNS 홍보를 위해 운영된 유튜브 미항TV는 실시간 중계 최대 300명 이상 시청, 누적 조회수 2,000회를 돌파했다.

축제 첫날,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풍어제, 마량면 풍물놀이패 공연 등 식전행사와 개막 축하 공연, 불꽃놀이 등으로 화려한 시작을 알렸으며, 개막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해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 차영수 도의원 등 각계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둘째 날 열린 어린이 활어맨손잡기 체험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싱싱한 전어와 장어를 잡는 체험을 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노래자랑은 가수협회장 신선호씨가 심사를 맡아 진행했으며 최종 12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차지한 수상자는 상금을 전액 기부해 훈훈함을 안겼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가을 대표 별미인 전어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을 모으며 강진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민선8기 힘찬도약 이끈 신규시책 발굴 '분주'

신규시책 보고회 개최...지역현안 해결 위한 2023년 147개 과제 선정

해남군은 지난 8일 "2023년 신규시책 및 중장기과제 발굴보고회"를 갖고, 민선8기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는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와 전남도 100대 공약에 따른 우리군 대응과제와 함께 지역현안을 해결할 신규과제 147건의 발굴 결과를 공유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남군의 내년도 주요 시책으로는 ▲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 서남해안 생태정원도

시 조성 ▲ 저탄소농법 활성화 등 국정과제 대응과제 19건을 비롯해 ▲ 절임염수 재활용설비 구축 ▲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 등 전남도 공약 대응과제 17건이 포함되었다.

또한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 ▲아이키움 통장사업 ▲맞춤형 스마트 쇼핑몰 구축 ▲공통대축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 군민 체감형의 시책을 포함한 더 깨끗한 해남 만들기 시책 등 111건의 지역현안사업도 발굴되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반부패·청렴·친절 교육 실시

정해숙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가 초청, '모두가 행복한 청렴한 세상' 주제

진도군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선 8기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반부패, 청렴·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3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모두가 행복한 청렴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민선 8기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반부패·청렴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정해숙 전문강사(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가 진행했다.

정해숙 강사는 이날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 등 공공기관 감질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정해숙 강사는 청렴한

공직 생활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군민들에게 '친절'을 강조했다.

군은 개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군민 중심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청렴·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선 8기를 맞아 공무원들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인간의 4성인 '仁·義·禮·智'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공직자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